

자유놀이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의 대화 양식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Maternal Conversation Style and Communicative Intent
of Young Children during Free Play

성 미 영*
Sung, Miyoung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ve intent of infants and the conversation style of mothers were investigated with 20 mothers and their 2- and 3-year old children. They conversed in naturalistic settings while playing with Lego blocks. Cluster analyses revealed 2 maternal styles: a conversation-eliciting and a directive style. Children of conversation-eliciting mothers provided more information than those of directive mothers. Children of directive mothers requested more permission than those of conversation-eliciting mothers. Implications of these two maternal styles for children's communicative 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어머니의 대화 양식(maternal conversation style),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maternal communicative intent),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infant communicative intent)

* 접수 2003년 6월 30일, 채택 2003년 7월 28일

* 교신저자 :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E-mail : minie@skuniv.ac.kr

I. 서론

전통적으로 언어학자와 아동 언어 연구자들은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 지식을 구분하여 전자는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 후자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대표적인 하위 영역으로 의사소통 의도가 있다. 출생과 더불어 아동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의도 표현과 타인의 의도 이해 능력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나이 어린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향은 크게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발달에 관한 연구(Garvey, 1975; Shatz, 1978; Shatz & O'Reilly, 1990),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Folger & Chapman, 1978; McDonald & Pien, 1982; Sachs & Devin, 1973, 재인용), 그리고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Kertoy & Vetter, 1995; Wanska & Bedrosian, 1986)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의 특징을 살펴본 초기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 어린 아동도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후 19개월에서 34개월의 유아는 언어를 타인의 해석하고 반응할 때 행위에 근거한 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tz, 1978). 또한 의사소통 의도 중 행위 요구와 명료화 요구 의도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Garvey(1975)는 만 3세에

서 5세 아동의 행위 요구 의도를 직접적인 요구와 간접적인 요구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에서 직접적인 요구 형태를 빈번하게 보이고, 대부분의 요구는 승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만 2세 유아의 명료화 요구 의도 사용의 경우 부모의 명료화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tz & O'Reilly, 1990).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achs와 Devin(1973, 재인용)은 아동에게 하는 어머니의 질문 유형을 정보 요구와 행위 요구로 나누고, 정보 요구는 외부 세계, 내부 상태, 허용, 승인, 명료화 요구로, 행위 요구는 사물, 서비스, 금지, 주의집중 요구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만 2세 아동은 나이 많은 아동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외부 세계보다는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에 응답하도록 더 요구받았다. 생후 19개월에서 25개월의 아동과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어머니의 발화 가운데 약 37%는 정보 요구, 15%는 행위 요구, 29%는 설명으로 나타나서(Folger & Chapman, 1978) 아동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보였다.

대화 주제와 대화 상황의 차이는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조작기 아동과 어머니의 주제 유지 및 주제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에서 어머니는 모든 주제 유형에서 주로 자신의 요구에 의해 주제를 유지한 반면, 아동은 어머니의 질문에 반응함으로써 주제를 유지하였다(Wanska & Bedrosian, 1986). 즉,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요구 의도를 주로 사용하고, 아동은 반응 의도를 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4세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 상황을 놀이 상황과 돕기 상황으로 나누어 의사소통 의도를 살펴본 Kertoy와 Vetter(1995)에 의하면, 어머니는 놀이 상황보다 돕기 상황에서 명령과 행위 요구 의도를 더 많이 보였으며, 돕기 상황보다 놀이 상황에서 정보 제공 의도를 더 많이 보였다. 반면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 상황과 돕기 상황의 차이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경향을 분리하여 살펴보았을 뿐 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 사용과 유아의 언어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평균발화길이(MLU)를 근거로 관련성을 파악하거나(이진희, 1984; 정순희, 1990),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근거한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언어 발달간의 관계(이광자, 1989)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유아와 어머니의 개별 의사소통 의도 자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어휘 양식과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성미영과 이순형(1997)의 연구에서는 유아 자신의 개별적 특성인 어휘 양식이 의사소통 의도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대물지향적 어휘 양식의 아동은 대인지향적 어휘 양식의 아동보다 정보 제공 의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처럼 유아 자신의 언어 구조 발달과 언어 사용 능력 발달간의 관련성이 입증됨과 더불어, 단일어 시기에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생후 18개월 시기 아동의 발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의도와 어머니의 발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Ninio, 1992)의 결과, 아동의 단일어 발화는 동일한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

한 어머니의 단일어 발화와 유사성을 보여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단일어 시기에 나타난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련성은 두 단어 이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시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2세 및 3세 유아와 그 어머니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와 유아가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언어 발달의 다양성, 즉 개인차는 언어 발달의 보편성을 주장한 언어학자들에 의한 간과되었으나, 언어 발달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의해 그 다양성이 입증되었다. 유아의 어휘 양식이나 어머니의 대화 양식은 언어 영역의 대표적인 개인차의 예이다(Goldfield & Snow, 1993). 어머니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언어 사용 특징은 어머니들간에 개별적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 양식(communicative styles) 또는 대화 양식(conversational styles)으로 명명된다. 아동, 특히 나이 어린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대화 양식에 관한 선행연구(Fivush & Fromhoff, 1988; Haden & Fivush, 1996; Kloth, Janssen, Kraaimaat, & Brutton, 1998; McDonald & Pien, 1982; Pine, 1992)에 의하면, 어머니의 대화 양식은 발화상의 일부 특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McDonald와 Pien(1982)은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의도가 두 가지 지배적인 형태로 표출됨을 발견했다. 하나는 아동의 신체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는 의도이다. 즉 아동과의 대화에서 통제적 대화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양식이 양극단의 형태로 범주화됨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아동의 대화를 분석한 연구들(Kloth et al., 1998; McDonald & Pien, 1982; Pine, 1992)은 대화가 발생하는 맥락을 주로 자유놀이 상황으로 한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반면, Fivush와 Fromhoff(1988)는 과거 사건에 대한 대화 상황을 통해 어머니의 대화 양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유놀이 상황에서와는 달리 정교한 양식과 반복적 양식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화의 구조적 특징 중 질문 유형에 근거한 범주 구분이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동일한 질문의 반복을 많이 사용할 경우 반복적 양식에, 새로운 정보가 포함된 질문을 많이 할 경우 정교한 양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유놀이 상황 또는 과거 사건에 대한 대화 상황과 같이 동일한 맥락 내에서 어머니의 대화 양식의 개인차를 살펴본 반면, 일부 연구(Haden & Fivush, 1996)에서는 대화가 발생하는 맥락의 차이가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대화와 과거 사건에 관한 대화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화 양식은 맥락에 민감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의 차이, 즉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대화인지 아니면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상황인지에 따라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맥락 내에서도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개인차가 나타난다(Haden & Fivush, 1996). 그런데 자유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화 유도적 양식과, 과거 사건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양식은 대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간주된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맥락간 차이보다는 동일 맥락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대화 양식의 개인차를 범주화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대화 양식은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George, 1986; Lieven, 1978; Nelson, 1981),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지시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보다 언어 발달이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어휘 수준도 높았으며,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른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의 경향만을 살펴보았을 뿐 언어 사용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대화 유도적인 어머니는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McDonald & Pien, 1982) 이처럼 대화를 유지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아동이 스스로 정보나 행동을 대화 상대방인 어머니에게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지시적 양식의 어머니는 대화 유지보다는 행동을 통제할 목적을 가지므로(Nelson, 1981) 어머니 스스로 정보를 직접 유아에게 제시해주거나, 유아가 놀이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일부 선행 연구(이진희, 1984; 정순희, 1990)에서는 어머니의 대화 양식을 범주화하기보다는 평균발화길이(MLU)와 같은 어머니와 유아의 문법적 특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화 양식, 즉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에 따른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자유놀이 상황에 나타난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는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 및 3세 유아 20명(평균 월령 38개월, 월령 범위 32개월~42개월)과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 유아의 주된 상호작용 대상이자 주양육자가 어머니이며, 생후 30개월이 되어야 유아와 타인과의 일관된 언어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Foster, 1986), 이 연구에서는 만 2세 및 3세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연령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7명, 만 3세 유아가 13명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9명, 둘째가 11명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는 평균 연령이 33세로, 대학 졸업이 15명(75%), 대학원 졸업이 3명(15%)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를 보면, 17명(85%)이 전업주부, 3명(15%)이 취업주부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의 구성

1) 어머니의 대화 양식

어머니의 대화 양식을 범주화하기 위해 이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정보 요구 및 행위 요구 의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군집분석(Ward's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군집내 거리의 자승합을 가장 작게 하는 최적치를 모색하는 Ward 방식(김영석, 2002)을 사용하여 coefficient 값이 급상승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군집을 구분한 결과, 20명의 연구대상 어머니 가운데 13명은 대화 유도적 양식으로, 7명은 지시적 양식으로 범주화되었다. 선행 연구(Fivush & Fromhoff, 1988; Haden & Fivush, 1996; Kloth et al., 1998; McDonald & Pien, 1982; Pine, 1992)를 토대로 자녀와의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화 양식을 대화 유도적 양식과 지시적 양식으로 양분하였는데, 대화 유도적 양식이란 어머니가 유아와의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형이며, 언어적 통제를 통해 아동의 행동을 지시하는 어머니의 유형은 지시적 양식으로 명명하였다.

2) 유아 및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

이 연구에서는 Wanska와 Bedrosian(1986)의 의사소통 의도 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한 성미영·이순형(1997)의 범주에 근거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 상위범주는

제공 의도와 요구 의도로 구분되며, 제공 의도는 다시 정보 제공 의도와 행위 제공 의도로 나누어진다. 정보 제공 의도는 유아 또는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발화(“이거 자동차야.”)를 의미하며, 행위 제공 의도는 유아 또는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행위를 제시하면서 산출하는 발화(“이렇게 해서 여기다 꽃으면 자동차가 돼.”)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요구 의도는 정보 요구, 행위 요구, 허용 요구, 주의집중 요구, 그리고 명료화 요구로 나누어진다. 정보 요구 의도는 유아 또는 어머니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발화(“이건 뭐예요?”)를 말하며, 행위 요구 의도는 유아 또는 어머니가 특정한 행위의 수행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발화(“저기 있는 빨간 블록 주세요.”)를 말한다. 허용 요구 의도는 유아 또는 어머니가 상대방으로부터 권한을 확보하려는 발화(“다른 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를 말하며, 주의집중 요구 의도는 상대방이 유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발화(“엄마, 이것 좀 보세요.”)를 말한다. 명료화 요구 의도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발화(“정말 아저씨야?”)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 범주에 근거하여 관찰기록표를 구성하였으며, 유아와 어머니의 발화를 단위로 하여 의사소통 의도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빈도를 관찰기록표에 기록하였다. 의도가 불명확한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예비관찰

어머니의 의사소통 양식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상황을

선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 2쌍을 대상으로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선행연구(Haden & Fivush, 1996; Kloth et al, 1998; McDonald & Pien, 1982; Pine, 1992)를 토대로 구조화된 놀이감(예, 병원놀이 도구)과 비구조화된 놀이감(예, 레고블록 세트)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놀이감을 선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각각의 놀이 상황에 나타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사자료를 아동학 전공자 3인이 분석한 결과, 구조화된 놀이감보다는 비구조화된 놀이감을 사용한 경우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레고블록 세트를 이용한 자유놀이 상황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본관찰

20쌍의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관찰을 실시하기 위해 1인의 관찰자가 연구대상 유아의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자유놀이 상황을 설정하였다. 본관찰은 방문한 가정의 거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관찰 실시 이전에 연구대상 유아 및 어머니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10분 정도의 준비시간을 가졌다. 본관찰의 도구는 예비관찰을 통해 선정된 레고블록 세트를 사용하였다. 거실의 중앙에 레고블록 세트를 비치하고 유아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서 놀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놀이감을 비치한 후 평소와 같이 놀이를 하도록 어머니에게 요청하였다. 레고블록을 이용한 자유놀이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가 보이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30분 동안 관찰하면서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녹화된

테이프의 처음 10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분 동안 유아와 어머니가 산출한 발화를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발화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개별 발화를 1회로 점수화하였다.

전체 전사자료 가운데 임의로 10%의 전사 자료를 선정하여 아동학 전공자 2인이 분석 범주의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98%의 일치도를 보였

다. 분석자간 평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사자료와 녹화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빈도분포,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군집분석, 그리고 t-검증이 통계방법으로 이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전반적 경향

<표 1>에 제시된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사용의 전반적 경향에 의하면, 전체 의사소통 빈도의 경우 어머니는 131.10회, 유아는 113.25회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 횟수가 더 많았다. 먼저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는 제공 의도(M=46.85)보다 요구 의도(M=84.25)가 많았으며, 제공 의도의 경우에는 주로 정보 제공 의도(M=42.00)였으며, 요구 의도의 경우에는 정보 요구(M=43.55), 주의집중 요구(M=24.40), 행위 요구(M=14.60), 명료화 요구(M=1.40), 허용 요구(M=.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는 요구 의도(M=27.40)보다는 제공 의도(M=85.8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공 의도의 경우 행위 제공(M=12.10)보다는 정보 제공 의도(M=73.75)가 많았으며, 요구 의도의 경우에는 정보 요구(M=10.05), 주의집중 요구(M=6.25), 명료화 요구(M=5.85), 행위 요구(M=4.70), 허용 요구(M=.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주로 유아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유아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표 1>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범 주 구 분	어머니M(SD)	유아M(SD)
전체 의사소통 의도	131.10(43.12)	113.25(28.24)
제공 의도	46.85(19.54)	85.85(28.30)
정보 제공 의도	42.00(18.56)	73.75(28.69)
행위 제공 의도	4.85(2.91)	12.10(6.27)
요구 의도	84.25(30.59)	27.40(13.66)
정보 요구 의도	43.55(17.75)	10.05(7.00)
행위 요구 의도	14.60(8.31)	4.70(3.77)
허용 요구 의도	.30(.57)	.55(.94)
명료화 요구 의도	1.40(1.90)	5.85(5.40)
주의집중 요구 의도	24.40(10.86)	6.25(4.90)

2.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계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표 2〉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상관관계

범주 구분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									
	제 공	정 보 제 공	행 위 제 공	요 구	정 보 요 구	행 위 요 구	허 용 요 구	주의집중 요 구	명료화 요 구	
유아의	제 공	.578**	.572**	.233	.675**	.584**	.398	-.205	-.102	.671**
의	정보 제공	.510*	.524*	.086	.686**	.654**	.303	-.205	-.102	.675**
	행위 제공	.277	.188	.660**	-.095	-.359	.413	.021	.372	-.063
	요 구	-.051	-.051	-.017	-.337	-.374	-.179	-.104	.228	-.234
소 통 의 도	정보 요구	.195	.230	-.155	-.145	-.271	.035	-.267	.093	.005
	행위 요구	-.366	-.365	-.134	-.215	-.158	-.184	-.225	.025	-.200
	허용 요구	-.138	-.198	.338	-.417	-.484*	-.165	.166	.515*	-.356
	주의집중 요 구	-.243	-.235	-.139	-.307	-.178	-.312	.067	-.142	-.316
	명료화 요구	.155	.106	.365	-.146	-.246	-.032	.160	.542*	-.088

*p<.05 **p<.01

의 의사소통 의도와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공 의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제공 의도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보이는 제공 의도 역시 많았으며($r=.578, p<.01$), 특히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r=.510, p<.05$). 또한 대화에서 어머니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유아의 전체 제공 의도($r=.572, p<.01$)와 정보 제공 의도($r=.524, p<.05$) 역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머니가 놀이 상황에서 행동을 더 자주 제공할수록 유아의 행동 제공 역시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660, p<.01$).

다음으로 요구 의도의 경우,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요구 의도를 자주 사용할수록 이에 반응하는 유아의 제공 의도 역시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r=.675, p<.01$), 특히 행동을 제공하기보다는 정보를 더 많이 제시하였다($r=.686, p<.01$). 어머니의 요구 의도를 하위 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어머니가 유아에게 정보

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제공 의도 수준은 높았으며($r=.584, p<.01$), 그 중에서도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r=.654, p<.01$). 반면, 어머니의 정보 요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어머니에게 허용을 요구하는 시도는 적었다($r=-.484, p<.05$). 어머니의 주의집중 요구 의도는 유아의 허용($r=.515, p<.05$) 및 명료화($r=.542, p<.05$) 요구와 정적 관련을 보여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주의집중을 많이 요구할수록 유아는 허용을 바라는 자신의 의도를 더 자주 나타냈으며, 명료화 역시 더 자주 요구하였다. 어머니의 명료화 요구 의도는 유아의 제공 의도($r=.671, p<.01$), 특히 정보 제공 의도($r=.675, p<.01$)와 정적 관련을 보여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의도를 자주 요구할수록 유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행위 요구 의도와 허용 요구 의도는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전체 제공 의도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t=-2.916, p<.01$)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M=107.14, SD=32.01$)가 지시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M=74.38, SD=18.68$)보다 더 빈번한 제공 의도를 보였다.

특히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M=96.29, SD=32.36$)는 지시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M=61.62, SD=17.99$)보다 제공 의도 중에서 정보 제공 의도를 더 많이 보였다($t=-3.112, p<.01$). 그리고 유아의 허용 요구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t=2.856, p<.05$) 대화 유도적인 어머니의 자녀($M=.00, SD=.00$)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반면, 지시적

인 어머니의 자녀($M=.85, SD=1.07$)는 어머니에게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행위 제공, 전체 요구, 정보 요구, 행위 요구, 주의집중 요구, 그리고 명료화 요구 의도에서는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차이

범 주 구 분	대화 유도적	지시적	t-값
	어머니 M(SD)	어머니 M(SD)	
제공 의도	107.14(32.01)	74.38(18.68)	-2.916**
정보 제공 의도	96.29(32.36)	61.62(17.99)	-3.112**
행위 제공 의도	10.86(5.73)	12.77(6.66)	.641
요구 의도	20.00(7.55)	31.38(14.76)	1.895
정보 요구 의도	8.00(6.35)	11.15(7.32)	.959
행위 요구 의도	3.14(1.95)	5.54(4.29)	1.388
허용 요구 의도	.00(.00)	.85(1.07)	2.856*
명료화 요구 의도	3.86(2.48)	6.92(6.29)	1.226
주의집중 요구 의도	5.00(4.65)	6.92(5.07)	.831

* $p<.05$ ** $p<.01$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의도간의 관련성, 그리고 어머니의 대화 양식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의 차이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2세 및 3세 유아와 그 어머니 20쌍을 대상으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녀와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주로 요구 의도를 사용한 반면, 유아는 주로 제공 의도를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위주로 대화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요구 의도 중에서도 유아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가 주로 자신의 요구에 의해 주제를 유지한 반면, 아동은 어머니의 질문에 반응함으로써 주제를 유지하였다는 선행 연구결과(Wanska & Bedrosian, 1986)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정보 요

구가 놀이 상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Folger & Chapman, 1978). 즉, 만 2세 및 3세의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기는 하였으나, 유아보다 숙달된 대화 능력을 갖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아직 어머니의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대화를 지속시키기보다는 어머니의 의도에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지속시켜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친숙한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대화 연습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또래와의 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시하는 언어적 자극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와 유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간에는 정적 또는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에서 서로가 사용하는 의도간에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제공 의도와 요구 의도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제공 의도 사용 역시 많았으며, 특히 어머니가 유아에게 정보를 많이 요구할수록 유아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정보 요구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허용 요구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어 시기에 어머니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와 아동의 의도간의 관련성을 입증한 Ninio(1992)의 연구 결과가 두 단어 이후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서 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누적된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화 양식의 차이에 따라 유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놀이 상황에서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유아는 지시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유아보다 제공 의도에 의한 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히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 상황에서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특징이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McDonald & Pien, 1982; Olson-Fulero, 1982). 즉 빈번한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달리 지시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유아는 대화 유도적 양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유아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허용을 어머니에게 더 자주 요구하였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려는 유아의 허용 요구 의도는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지시적 어머니의 특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지시적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놀이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아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높으므로(Lieven, 1978; Nelson, 1981), 유아는 이러한 어머니의 통제적 특징에 반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허용 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쌍의 어머니와 그 자녀의 대화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적은 수의 연구대상 이긴 하지만 언어자료의 경우 자료의 수집, 즉 비디오 녹화 및 전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

려한다면 이 정도의 연구대상 수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어 자료에 근거한 연구 결과의 분석에는 일반화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언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CHILDES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자료 이용이 시도되고 있다(MacWhinney, 1991). 한국어 자료 역시 CHILDE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킴으로써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언어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대화가 발생하는 상황의 차이만을 고려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상황에 한정하여 어머니의 대화 양식을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동이 속한 가정환경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들(김성애, 1995; 장영애, 1994; Hoff-Ginsberg, 1991, 1998)은 보편적으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언어적 환경을 아동이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 상황의 차이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 역시 동시에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와 아동간 영향력의 방향성 문제

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대화 양식의 차이가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대화 양식은 아동의 언어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의 대화 양식이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Barns, Gutfreund, Satterly, & Wells, 1983; Bates, Bretherton, & Snyder, 1988)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대화 양식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대화 양식의 특성에 따라 유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언어적 상호작용자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 사용 특징이 아동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종일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교사의 언어 사용 특징 역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의 언어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근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성애(1995).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석(2002).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 나남출판.
- 성미영 · 이순형(1997). 유아의 어휘양식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 *인간발달연구*, 4(1), 52-65.
- 이광자(1989).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희(1984). 어머니와 유아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4·5세 유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애 (1994). 아동의 언어능력과 환경변인간의 관계 분석Ⅱ :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71-184.
- 정순희(1990). 어머니, 유아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ns, S., Gutfreund, M., Satterly, D., & Wells, G. (1983). Characteristics of adult speech which predict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10, 65-84.
- Bates, E., Bretherton, I., & Snyder, L. (1988). *From first words to grammar : Individual differences and dissociable mechanism*. Cambridge : C. U. P.
- Fivush, R., & Fromhoff, F. A. (1988). Style and structure in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Discourse Processes*, 11, 337-355.
- Folger, J. P., & Chapman, R. S. (1978). A pragmatic analysis of spontaneous imita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5, 25-38.
- Foster, S. H. (1986). Learning discourse topic management in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231-250.
- Garvey, C. (1975). Requests and responses in children's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 41-63.
- George, B. L. (1986). *The variation in conversational style on children's language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Atlanta, GA.
- Goldfield, B. A., & Snow, C. E. (1993).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cquisition. In J. B. Gleason (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3rd ed.)*, NY : Merrill Publishing Company.
- Haden, C. A., & Fivush, R. (1996). Contextual variation in maternal conversational styles. *Merrill-Palmer Quarterly*, 42(2), 200-227.
- Hampson, J. E. (1989). *Elements of style : Maternal and child contributions to the referential and expressive styles of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manuscript,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Hoff-Ginsberg, E. (1991). Mother-child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communicative settings. *Child Development*, 62, 782-796.
- Hoff-Ginsberg, E. (1998). The relation of birth or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children's language experience and language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9(4), 603-629.
- Kertoy, M. K., & Vetter, D. K. (1995). The effect of conversational setting on topic continuation in mother-child dyads.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73-88.
- Kloth, S., Janssen, P., Kraaimaat, F., & Bruten, G. J. (1998). Communicative styles of mothers interacting with their preschool-age children :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149-168.
- Lieven, E. V. M. (1978). Conversations between mothers and young children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 for the study of language learning. In N. Waterson & C. E. Snow (Ed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NY : John Wiley.
- Luszcz, M. A. (1983). The emergenc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 Detection of conversational topics. *Journal of Child Language*, 10, 623-637.
- MacWhinney, B. (1991). *The CHILDES Project : Tools for analyzing talk*. Hillsdale, NJ : Erlbaum.
- McDonald, L., & Pien, D. (1982). Mother conversational behavior as a function of interactional int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9, 337-358.
- Nelson, K. (1981).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development :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70-187.
- Ninio, A. (1992). The relation of children's single word utterances to single word utterances in the input. *Journal of Child Language*, 19, 87-110.
- Ninio, A. (1995).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s in the single-word period and the vocabulary spurt. In K. E. Nelson & Z. Reger (Eds.),

- Children's language* (Vol.8). Hillsdale, NJ : Erlbaum.
- Olsen-Fulero, L. (1982). Style and stability in mother conversational behavior : A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Child Language*, 9, 543-564.
- Pine, J. M. (1992). Maternal style at the early one-word stage : Re-evaluating the stereotype of the directive mother. *First Language*, 12, 169- 186.
- Sachs, J., & Devin, J. (1973, December). *Young children's knowledge of age-appropriate speech styl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Shatz, M. (1978).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understandings : An early strategy for interpreting and responding to messages. *Cognitive Psychology*, 10, 271-301.
- Shatz, M., & Gelman, R. (1973).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kills : Modifications in the speech of young children as a function of listener.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5), Serial No. 152.
- Shatz, M., & O'Reilly, A. W. (1990). Conversational or communicative skill? A reassessment of two-year-olds' behavior in miscommunication episodes.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131-146.
- Wanska, S. K., & Bedrosian, J. L. (1985). Conversational structure and topic performance i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579-584.
- Wanska, S. K., & Bedrosian, J. L. (1986). Topic and communicative intent in mother-child discourse.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523-535.